

예술강사가 인식한 예술강사지원사업의 효과분석*

임채홍**

장혜윤***

황양순****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제정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설립 이후 문화예술과 교육을 융합한 문화예술교육정책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예술강사지원사업은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예술강사의 전문성을 통해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의 범위 및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술강사가 인식하고 있는 사업의 효과를 학생, 학교, 지역공동체, 문화, 사회적 차원으로 다양하게 체계화하였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예술강사의 개인적인 특성들(연령, 성별 등)과 출강하는 학교의 특성(소재지 및 학교수준), 특정예술장르(국악, 연극, 미술, 공예 등) 등이 예술강사지원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는 요인들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와 시사점과 후속연구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주제어: 예술강사, 예술강사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정책, 정책효과 등

-
- * 본 논문은 2013년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2014년 경인 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을 보완 및 발전시킨 것입니다.
- ** 주저자,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주요 관심 분야는 정책분석평가(사회·문화정책, 과학기술정책 등), 계량분석·방법론, 재무행정, 도시·지방행정 등 이다(dlacoghd@hanmail.net).
- *** 교신저자,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주요 관심분야는 성과관리, 문화정책, 재무행정 등이다(hyj0228@gmail.com).
- **** 공동저자,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주요 관심 분야는 교육정책, 교육심리(학습심리, 성격심리) 등 이다(posunny21@naver.com).

I. 들어가며

최근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은 창의성이 경제발전을 이끄는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더욱 고조되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문화예술의 향유는 소득·지역별로 격차가 존재하며 교육을 통해 기호가 형성되는 특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문화권(cultural rights)의 관점에서 지역·소득별 문화예술 소외계층의 문화예술의 향유를 목적으로 문화예술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 향상 뿐 아니라 인성 함양, 주입식 학교교육의 완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문화예술교육정책이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로 인해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되었으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협력 하에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하여 「2010년 초·중등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방안」이 마련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교육과학기술부, 2010). 이러한 배경 하에 추진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2005년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대안학교 대상으로 국악분야를 시작으로 연극,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등 총 8개 분야의 예술강사를 파견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분야 및 수혜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1)

이에 따라 예술강사지원사업의 효과 및 영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객관적이고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워 효과를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심층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예술강사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들은 사업 효과를 분석하기 보다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성공요인 등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는 경향을 보인다(임학순, 2006; 우주희, 2008; 김무규; 2011; 김종원, 2011 등). 또한 모든 예술분야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일부 분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구인숙, 2010; 이정일 외, 2012; 홍기원, 2014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임영식 외 2011; 정문성 외, 2011; 김소영 외, 2012; 이정일 외, 2012; 임영식 외, 2013; 김민정·최미영, 2013 등)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주요 핵심 주체인 예술강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강사의 인식을 바탕으로 예술강사지원사업에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한 효과분석 모형을 개발하고,

1) 예술강사지원사업은 국악강사포제(2000년 시행)를 모태로 시작하여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사진, 공예 등의 8개 분야로 확대되었다.

사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예술강사는 학생들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하여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관찰 가능한 주체라는 점에서 이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술강사는 학교 및 관계 기관과 연계성이 높고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교수법 등의 역량을 바탕으로 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 사회 등 다차원적인 효과를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예술강사지원사업의 핵심 행위자인 예술강사의 인식을 기반으로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일정 부분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다양한 차원의 효과분석 모형을 개발하고 예술강사지원사업을 포함한 문화예술 교육사업에 적용이 가능한 종합적 효과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특히, 예술강사를 대상으로 개발된 다양한 효과 도구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를 검증하고, 종합적인 효과 분석을 시도하고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교, 관계 정부부처 및 기관 등이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효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기대할 수 있으며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포함한 학교문화예술교육정책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예술강사지원사업의 개요와 선행연구 검토

1. 예술강사지원사업의 개요

예술강사지원사업은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전문 예술강사를 파견 및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전국 2000년 국악 강사포제를 시작으로 점차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2005년 문화부에서 예술강사지원사업을 통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사업의 추진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의 협력 하에 시도교육청, 지자체(국악 분야) 등이 예산을 매칭 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7개 광역시·도의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국악), 국악운영단체(국악) 등이 사업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예술강사지원사업은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본 교과과정(음악, 국어, 체육 등) 내 융합이 가능한 분야의 예술강사를 파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전문적 문화예술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 및 토요동아리, 선택교과(고등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학생의 창의력 증진 및 문화향유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²⁾ 이처럼 예술강사지원사업은 교과과정 내 예술강사를 투입

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시행하는 사업운영 방식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사업의 운영 과정에 있어 교사와 예술강사의 협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업 내용은 예술강사의 전문성과 학교의 교육과정을 융합하여 예술강사가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교과(기본교과, 선택교과)는 교사와 예술강사의 협력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 '토요동아리'의 경우에는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수행하여 분야 내 세부 전공교육 등 심층적인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수혜 학교에 대한 지원시수는 학교별 수요 및 예산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되는데 학교당 최소 연 60시수에서 630시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복수 교과과정의 경우 교과과정별 최소 30시수를 지원하고 있다.

예술강사지원사업은 관련 법·제도의 정비로 2005년 이후 예산, 학교 수, 강사 수, 수혜학생 수, 수업시수 등 양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나, 상대적 규모를 고려할 경우 상대적으로 그 증가율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표 1〉 참조). 특히, 이러한 사업 규모의 변화추이는 분야별로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2013년 기준으로 국악 분야에 예술강사가 약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무용(약18%), 연극(약17%) 등의 순으로 이다. 그 외의 영화(약5%), 만화/애니메이션(약10%), 사진(약1%), 디자인(2%), 공예(3%) 등의 분야는 국악, 무용, 연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예술강사수가 크게 차이하고 있다. 한편, 각 분야의 연도별 강사수의 증가율은 사업초기에 비해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표 2〉 참조).

〈표 1〉 학교 예술강사지원사업 연도별 현황(2005-2013)

구분	단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예산	억원	71	89	178	206	586	625	620	618	747
학교 수	개교	3,214	2,445	3,157	3,689	4,799	5,436	5,772	6,531	7,254
예술강사 수	명	1,628	1,431	1,764	2,243	3,483	4,156	4,164	4,263	4,485
수혜학생 수	명	706,656	782,400	1,010,240	1,180,480	1,535,680	1,739,520	1,847,040	1,900,000	2,200,000
수업시수	시간	156,048	169,889	300,000	395,277	1,032,561	1,130,451	1,134,390	1,161,081	1,323,506
예산(억원)/학교수(천개교)		22.091	36.401	56.383	55.842	122.109	114.974	107.415	94.626	102.978
예산(억원)/예술강사 수(천명)		43.612	62.194	100.907	91.841	168.246	150.385	148.895	144.968	166.555
예산(억원)/수혜학생 수(천명)		0.100	0.114	0.176	0.175	0.382	0.359	0.336	0.325	0.340
예산(억원)/수업시수(천시간)		0.455	0.524	0.593	0.521	0.568	0.553	0.547	0.532	0.564

*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자료. 재인용.

- 2) 예술강사지원사업은 음악, 국어, 체육 및 즐거운 생활 등의 기본교과 내 국악, 연극, 무용 등을 연계하여 수업을 진행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 토요동아리 등의 선택교과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특기적성 교육,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은 제외).

〈표 2〉 학교 장르별 예술강사 현황(2008-2013)

(단위: 명)

구분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 애니	사진	디자인	공예	합계
2013	1,799	767	245	851	466	66	124	167	4,485
2012	1,699	766	253	807	467	48	96	127	4,263
2011	1,733	725	253	763	499	37	67	87	4,164
2010	1,568	845	330	801	500	24	39	49	4,156
2009	1,394	721	291	614	463	-	-	-	3,483
2008	984	450	212	299	299	-	-	-	2,244

*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자료, 재인용.

* 주: 2010년부터 사진, 디자인, 공예분야 신규 편성

2. 선행연구 검토와 시사점

기존연구들의 경향을 살펴보면 초기의 연구들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법·제도 설립 이후 개념 정립과 정책의 필요성(윤여각, 2003; 김미윤, 2004; 황연주, 2005; 박인배, 2007; 오세곤, 2008; 전효관, 2009 등)에 관하여 논하거나 법령 및 추진체계 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모델을 제시하는 연구(이구슬, 2006; 한지혜, 2006; 민경훈, 2007; 원수현 외, 2008; 석문주 외, 2010; 김무규, 2011 등)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후 문화예술교육정책에 대한 연구들은 보다 다각도에서 이루어지면서 분석방법 또한 다양해지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박소연 외(2011)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을 탐색하기 위해 Q방법론을 활용하였고, 홍성만 외(2012)는 심층면접 및 AHP를 활용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정책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제시하였으며, 이윤식·윤종현(2013)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성과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더욱이 예술강사지원사업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소수에 해당된다. 게다가 이러한 연구들조차 사업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성과 및 평가와 더불어 간접적으로 효과성을 제시하거나 제한적인 내용만을 포함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다(우주희, 2008; 이해춘 외, 2009; 김미경 외, 2010; 김상희, 2010; 이기성 외, 2010). 하지만, 최근에 이르러 문화예술교육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대표적으로 구인숙(2010)은 예술교육을 경험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집단 간 정서지능(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등)의 차이를 이원분산분석을 통해 분

석하였다. 또한 곽윤정(2010)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우울 성향, 자아상,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정보람·김휘경(2012)은 문화예술교육의 경험이 아동의 공감능력, 분노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규명하고 있으며, 하수연(2012)은 문화예술교육의 시행이 문화예술 분야에 참여수준을 높여 문화예술향유 인식의 제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임승희 외(2013)는 토요일문화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생(4-6학년)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검증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개인 내적 및 행동적 적응(창의성, 만족도, 행복감), 사회적 적응(사회성, 가족관계, 학교생활)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문성 외(2014)는 '예술꽃 씨앗학교'의 사업에 참여하였던 학생들에게 교육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설문조사 및 면담 등을 통해 분석하여, 유형(단절형, 부분지속형, 지속형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이 주로 학생을 대상으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던 반면, 관련된 다른 행위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임영식 외(2011)는 교정시설 및 소년원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시행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으며, 정문성 외(2011)는 노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김소영 외(2012)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토요일문화학교운영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임영식 외(2013)는 노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예술강사에 대한 FGI,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들은 방법론 측면에서 보다 다양화되고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다양한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예술강사지원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예술강사지원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학생에게 나타난 효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분석결과 예술강사지원사업의 시행은 학생들의 사회성, 자기효능감 등을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일 외, 2012; 김민정·최미영, 2013). 이정일 외(2012)는 무용 분야 예술강사지원사업의 시행이 사회성(협동심, 건전태도, 인내 및 집중)에 미치는 영향을 서울, 경남지역의 초등학생 5, 6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김민정·최미영(2013)은 예술강사지원사업이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 난이도 선호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다음

과 같은 경향과 한계를 보이고 있다. 첫째,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적 당위성,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논하던 초기의 연구들이 점차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에 대하여 간접적이거나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우주희, 2008; 이해춘 외, 2009; 김미경 외, 2010; 김상희, 2010; 이기성 외, 2010).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부차적으로 담고 있을 뿐, 보다 풍부한 논의는 부족하다. 둘째, 연구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면밀하게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례비교연구(우주희, 2008), FGI(임영식 외, 2013), 설문조사(이정일 외, 2012; 김상희, 2010; 구인숙, 2010 등) 등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사업의 효과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임영식, 2011; 임영식, 2012; 김소영 외, 2012; 정문성 외, 2011; 임영식 외, 2013; 정문성 외, 2014 등). 이들은 대부분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사업평가 및 효과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전의 연구들에 비하여 실증적인 분석에 초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실증적 연구들의 분석결과는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는데, 이는 효과에 대한 정의, 분석단위(분석대상), 분석방법 등이 각기 다르게 설정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셋째,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구인숙, 2010; 박윤정, 2010; 하수연, 2012; 김보람·정휘경, 2012; 이정일 외, 2012; 김민정·최미영, 2013). 특히 박윤정(2010)을 제외한 다수의 연구들은 아동의 정서에 문화예술교육이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어, 포괄적인 분석이기 보다는 특정 부분의 효과에 주목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다. 넷째,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들 중 다수의 연구에서 실증적인 방법이 시도되고 있지만 주로 기술통계, 평균비교분석 등을 통해 분석을 시행하고 있어 인과관계를 추론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임영식 외, 2011; 정문성 외, 2011; 임영식 외, 2013; 김소영 외, 2012 등). 이들은 개괄적인 추세치의 변화, 평균에 대한 경향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사업별로 실증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수집의 현실적인 제약 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분석대상은 주로 단일 문화예술분야에서 시행되는 효과를 검증하거나(구인숙, 2010; 이정일 외, 2012) 수혜학생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된 경향이 있다. 즉, 사업의 효과를 학생의 정서적인 측면만 고려하여 다차원적인 사업효과를 검증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국악, 연극, 무용 등 총 8가지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게다가 예술강사지원사업의 효과를 대상으로 삼는 연구들이(이정일 외, 2012; 김민정·최미영, 2013) 제한적으로 존재하는 편이나, 다수의 행위자의 측면을 고려한 효과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문화예술교육의 직접적 수혜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삼는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타 행위자를 중심으로 하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상의 기존연구의 경향과 한계를 전제로, 예술강사지원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론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술강사지원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행위자(학생, 비수혜학생, 예술강사, 학교 교사, 시도 장학사, 광역센터 및 협회 등)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주체인 예술강사를 중심으로 적절한 효과분석 모형을 개발하고 효과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예술강사를 분석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예술강사는 사업의 주요 행위자로서 학교 내에서 교사와의 협력 하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즉, 학교 및 학생, 교사에게 나타나는 사업의 효과를 관찰할 수 있으며 사업으로 인한 예술강사에게 발현되는 효과를 체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술강사지원사업의 다차원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예술강사의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한다.

Ⅲ. 예술강사지원사업 효과분석 모형 개발

1. 효과분석 모형의 구조 및 핵심지표

본 연구의 목적은 예술강사의 인식을 바탕으로 예술강사지원사업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분석을 위한 모형은 사업의 주요 대상 및 수준을 고려함과 동시에 사업으로 인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결과 요소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구성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모형에 포함되는 핵심 변수들을 도출하였으며 수경·보완을 통해 기존연구와의 차별성을 두었다. 우선 기존연구들에서 분석대상이 주로 수혜학생 중심으로 설정되었던 반면 본 연구는 예술강사지원사업의 핵심 주체인 예술강사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예술강사는 사업과 관련된 예술강사지원사업에서 타 행위자(학생, 학교,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와 쌍방적인 교류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다양하게 규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이 학생들의 반응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시행한 반면 본 연구는 학습, 행동, 결과와 같은 보다 폭넓은 효과를 분석하며 학교, 지역공동체차원, 문화차원, 사회차원 등으로 연구 범위를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내의 선행연구들(구인숙, 2010; 김상희, 2010; 정문성 외, 2011; 이

정일 외, 2012; 김민정·최미영, 2013 등)과 영국 중학교 수준에서 예술교육의 효과를 연구한 Harland et al.(2000)의 주요 내용을 종합함으로써 예술강사지원사업의 효과 항목을 도출하였다. 효과 항목은 학생차원의 교육효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논리 모형(logic model)을 고려한 효과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학생의 교육적 효과의 구성은 Kirkpartrick의 반응(reaction), 학습(learning), 행태(behavior), 결과(result)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훈련 평가모형을 참고하였다. 한편, 논리모형의 단계적 산출(output)과 증장기적 결과(outcome) 모형에 기초하고 있으며, 더불어 효과발생 영역(domain)을 참조하여 산출에서는 학생차원, 학교차원의 교육적 효과를, 결과에서는 지역공동체적 효과, 문화적 효과, 사회적 효과를 구성하고 있다.

〈표 3〉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예술강사지원사업의 효과 수준, 영역, 항목도출

수준	영역		항목	참조
학생 차원 (교육)	학생에의 효과	반응 (reaction)	-예술관련 과목 수업, 강사,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예술관련 과목 수업에 대한 몰입도/효능감 -새로운 기회와 경험 cf) Immediate intrinsic effects-Forms of enjoyment and Therapy: Enjoyment, excitement, fulfillment, stress reduction and therapeutic value...fun, happiness, satisfaction, relaxing (H)	(H)Harland et al.(2000) ³⁾
		학습 (learning)	-예술관련 지식 증가 -예술관련 실습기회 증가 cf) Artform Knowledge and Skills: enhanced knowledge, understanding, appreciation and skills in different artforms (H)	
		태도 및 행동 (Attitude & Behavior)	<u>예술분야(Educational Attitude in Art)</u> -Efficacy: 예술교육에 대한 <자기효능감>* -Motivation: 학습동기 및 의욕/(표현력/창의성) -Attitude & Behavior: 학습태도 및 행태→몰입engagement, 참여, 산만, 흥미, 표현력 -Output: 학습결과/성적, 진로선택에 변화, 예술작품-활동 참여/생산 동기	*김민정·최미영 (2013)

		<p>motivation (H)</p> <p><u>비예술분야(Educational Attitude in Non-Art)</u> =Transfer Effect from Art to Non-art -Transfer effect: 예술교과가 타교과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Motivation: 타교과 학습동기 및 의욕/(표현력/창의성) -Attitude & Behavior: 타교과 학습태도 및 행태→몰입engagement, 참여, 산만, 흥미, 표현력 -Output: 타교과 학습결과/성적</p>	
학생의 역량 수준에 대한 인식	예술성	<p><u>예술적 마인드와 역량(Art Mind and Capacity)</u> -예술에 대한 미적 판단과 영감 developing aesthetic judgement & inspiration in art (H) -예술 기법·기교 및 역량 technical skills and capabilities (H) -예술 해석능력/기술 interpretative skill (H)감상능력 extending appreciation (H) -예술에 대한 긍정적 평가 encouraging positive attitudes (H) -예술에 대한 일반적 지식 및 능력(교양)</p>	
		<p>cf) <수혜자의 문화예술성은 자기효능감, 기능, 창의성/문화예술적 감성, 리더십, 교과학습태도, 정서통제, 자기표현/발표력, 사회성)*</p>	*정문성 외(2011)
		<p>cf) 문화예술 이해도, 문화예술 흥미도, 창의성 향상, 자아존중감 증진, 공동체 의식, 사회적 관계*</p>	*'12년 성과평가
	인지	<p>-인지지표: 인지능력, 사고력, 상상력, 사고능력 및 문제해결 creativity, imagination, the capacity to experiment and innovate, thinking and problem-solving skills (H)</p>	*구인숙(2010)
		<p>-전인격 whole personality -자존감, 자기확신, 자기정체성, 표현력</p>	*정문성 외(2011)

		cf) <수혜자의 인성은 자존/행복, 표현/창의성, 협동/사회성>*→ Big Five/MBTI 적용검토		
	감성	-정서지표: <정서지능>*, 감성, 정서통제, 감정이입	*구인숙(2010)	
	사회성	-행태지표: 자기표현기술, 의사소통, 집중력=인내력, 타인포용 cf) Cognitive Outcomes, Motivational Outcomes, Creativity Outcomes, Social Skills Outcomes ⁴⁾	*구인숙(2010)	
-<사회성>*, 사교성, 의사소통,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 단체활동, 협동성, 사회를 보는 지식과 시각 Knowledge in the social and cultural domain: broad perspective on cultural tradition, diversity. social and moral issues (H)		*이정일 외(2012)		
학교 차원	교육자에의 효과	예술강사(Teaching Artist)	-교육내용과 방법의 변화 practice, instruction -교육능력/전문성 개발(노력) professional development -교육능력/전문성 개발에 따른 전문성 증가 -‘예술’-교육능력 향상	
			-(수행주체)본 사업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수행에 보람을 느끼십니까?*	*'12년 성과평가
			-예술가-교육가 사이의 정체성*	*김상희(2010)
	교사 (Teacher)	-교과 내용, 방식, 질(풍요화) 등의 변화 -교과운영 부담 경감, 재량		
	교육기관에의 효과	교육인력	-<구성원의 문화적 역량 증진,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역량 향상, 대외적 효과>* -기존 교사의 역량 증가	*정문성 외(2011)
교육운영		-교과목에 대한 요구, 필요성 증대 -학교문화 형성: create adventure climate, positive and enjoyment-oriented, bonding in the school (H) -교과과정 운영역량: 본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귀	*'12년 성과평가	

			기관의 지원 및 운영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환경	-문화예술 시설, 도구 개선 -문화예술 시설 활용도 개선 cf) <문화예술 교육환경 개선, 문화예술 인프라 활용>*	*정문성 외(2011)
			cf) 본 사업을 통해 귀 기관의 문화예술교육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2년 성과평가
	교육프로그램에의 효과	교육의 내용과 과정적 측면	-Quantity: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양적 증가/다양성→ 기존 예술교육의 공백 해소→기존 예술교육 부족영역에 대한 욕구 해소→ 문화예술교육기회의 증가 -Link: '예술'과 '교육'의 연계성 강화(예술교육의 기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강화) -Collaborative Edu.: 공동교육과정 운영	
		교육의 결과적 측면	-Quality: 교육방법의 질적 발전, 문화예술교육 수준의 향상	
지역 공동체 차원	지역사회 공동체에의 효과	지역사회 예술활동 (Art Activities)	-예술강사들의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와 주도 -지역 '내·외' 예술인력의 활용증가 -지역 내 예술가 네트워크 형성	
		지역사회 문화역량 강화(Cultural Capacity at Local Community)	-예술 프로그램: 지역 내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양적 증가, 질적 개선 -지역 주민: 지역 내 예술활동증가로 지역민의 예술활동 참여증가, 이에 따른 삶의 질 개선 -지역 정체성: 예술활동을 매개로한 지역 정체성 강화 -지역 경제: 지역 내 문화산업의 가능성-고용/산업화 -지방 정부: 지방정부의 문화예술에 지원과 관심 증가/예산증가 cf) -지역 내 문화예술관련 협력증가: 본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예술 주체와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12년 성과평가
			-지역 내 문화예술가치의 확산: (향유기관)본 사업이 문화예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지역사회에 확산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격차 해소: (항유기관)본 사업이 지역별 문화예술 격차 해소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사회 반응: (항유기관)지역사회는 본 사업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문화 차원	문화에의 효과	생산와 소비	-문화적 생산(예술활동 수행, 작품 도출)과 소비(간접 구매소비, 직접 참여 소비) -과외감소/증가(관련 예술과목 수강증가)	
		전파	-나의 문화적 지식을 타인에게 전달	
		확산	-(항유자)예술수업을 친구/동료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기타) 학생들간에 문화적 활동이 증가했다.	*'12년 성과평가
사회 차원	사회에의 효과	예술의 사회적 가치 (Social Value of Art)	-본 사업이 문화예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지역사회에 확산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삶의 질 (Quality of Life)	-학생의 행복감, 삶의 만족도, 몰입도, 만족도, 심리적 안정성, 스트레스 감소	
			-예술강사의 행복감, 삶의 만족도, 몰입도, 만족도, 심리적 안정성, 스트레스 감소	
			-예술강사의 수입증대, 고용안정, 사회적 지위 향상	
		사회적 포용 (Social Inclusion)	-사회적 소외계층들에 대한 예술교육 기회의 확대	
시민양성 (Civic Engagement)	-학생들의 자원봉사, 투표참여, 학교 및 지방 정치활동에 참여 ⁵⁾			

3) Harland, J., Kinder, K., Lord, P., Stott, A., Schagen, I., Haynes, J., Cusworth, L., White, R. and Paola, R. 2000. Arts Education in Secondary Schools: Effects and Effectiveness.

4) Winner, Ellen. 2011. "The Impact of Arts Education". Education for Innovation: The Role of Arts and STEM Education OECD

2. 분석대상과 표본현황

〈표 4〉 표본의 주요 현황

		빈도 (명)	퍼센트 (%)		빈도 (명)	퍼센트 (%)		
연령대	20대	159	21.49	문화예술과 관련해 귀하의 주 활동 무대	서울	139	18.78	
	30대	337	45.54		인천	28	3.78	
	40대	207	27.97		대전	41	5.54	
	50대 이상	37	5.00		대구	37	5.00	
성별	남자	144	19.46		광주	40	5.41	
	여자	596	80.54		울산	9	1.22	
연간소득범위	일천만원 이하	68	9.19		부산	64	8.65	
	일천만원 대	311	42.03		강원	41	5.54	
	이천만원 대	217	29.32		경기	61	8.24	
	삼천만원 대	74	10.00		충북	33	4.46	
	사천만원 이상	70	9.46		충남	40	5.41	
학력수준	전문대 졸업 이하	32	4.32		경북	69	9.32	
	4년제대 졸업 이하	324	43.78		경남	36	4.86	
	석사과정 졸업 이하	348	47.03		전북	49	6.62	
	박사과정 이상	36	4.86		전남	40	5.41	
주로 출강했던 학교의 주 소재지	시골이다 (읍·면 소재지)	178	24.05		제주	13	1.76	
	(100만 미만) 중소도시이다	250	33.78		국악	265	35.81	
	(100만 이상) 대도시이다	312	42.16		연극	150	20.27	
출강했던 학교들의 수준	우리 지역에서 좋은 학교이다	105	14.19		예술강사 영역	미술	4	0.54
	주변 학교와 비슷하다	542	73.24			영화	48	6.49
	주변 학교에 비해 못하다	93	12.57	무용		124	16.76	
경력수준	대(5년 초과)	295	39.86	만화/애니메이션		90	12.16	
	소(5년 이하)	445	60.14	공예		29	3.92	
민간자격증 수준	대(2개 이상)	234	31.62	사진		4	0.54	
	소(1개 이하)	506	68.38	디자인		26	3.51	
국가자격증 수준	대(2개 이상)	301	40.68	합계	740	100.00		
	소(1개 이하)	439	59.32		0			

5)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2012. The Arts and Achievement in At-Risk Youth: Findings from Four Longitudinal Studies.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분석대상은 최근 3년간 예술강사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약 4,000명의 예술강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예술강사의 메일리스트를 활용하여 2013년 10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약 1달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740명의 예술강사가 응답하였다. 개괄적인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4>와 같이, 3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이 남성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르별로는 국악, 연극, 무용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경상북도, 부산, 경기도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는 선행연구들의 검토를 통해 예술강사지원사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확정하였으나, 구성에 있어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할 때 분석에 의의를 갖는다. 타당도는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또는 논리적 타당도(logical validity), 기준타당도(criterion-related validity) 또는 경험적 타당도(empirical validity), 구성개념타당도(construct validity)로 구분할 수 있다(남궁근, 2013 재인용).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설문문항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내용타당도와 기준타당도의 경우 일정 부분 확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문항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여야 초점을 두어 탐색적 차원에서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한편,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크롬바흐 알파계수(cronbach's alpha)를 통하여 측정 항목의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검증하였다(남궁근, 2013). 이상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구성타당도의 수준을 판별하기 위해 주성분분석에 의한 직교회전 방식을 활용한 요인분석 결과, 각 요인별로 세부 측정항목이 단일 요인으로 묶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뢰도 분석결과 크롬바흐 알파값은 대체로 0.9에 가까운 값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신뢰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측정하고자 하는 잠재변수와 세부측정문항간의 구성타당도 및 내적일관성은 높은 편으로 판단되어 각 측정지표의 5점 척도(전혀 아니다=1, 약간 아니다=2, 반반이다=3, 약간 그렇다=4, 매우 그렇다=5)를 산술평균하여 다양한 분석을 시행한다.

〈표 5〉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결과

차원	영역	측정지표			공통성	성분 행렬	항목 수	Cronbach의 알파			
		측정 지표명	번호	측정내용				상위 차원	하위 영역	항목이 삭제된 경우	
학생 차원	반응	만족	(1)	예술강사의 문화예술교육 수업에 대해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만족했다	0.732	0.783	16	0.915		0.951	
		몰입	(2)	예술강사의 문화예술교육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몰입한다	0.755	0.809				0.951	
		재미	(3)	예술강사의 문화예술교육 수업에 대해 학생들이 재미있어 한다	0.762	0.794				0.951	
		흥미	(4)	학생들이 예술강사의 문화예술교육 수업에 흥미를 보인다	0.785	0.815				0.951	
	행동	동기	(5)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을 열심히 참여하려 했다	0.766	0.810		0.954	0.876		0.951
		몰입	(6)	학생들은 문화예술교육을 받을수록 문화예술 관련 수업에 대해 집중했다	0.749	0.834					0.950
		참여	(7)	학생들은 문화예술교육을 받을수록 문화예술 관련 수업에 적극 참여했다	0.739	0.834					0.950
		성적	(8)	학생들은 문화예술교육을 받을수록 문화예술 관련 과목에 성적이 높아졌다	0.484	0.684					0.954
		진로	(9)	문화예술교육이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0.530	0.703					0.953
	결과	관심	(10)	문화예술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이 문화예술전반에 적극적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0.681	0.807		0.921			0.950
		지식	(11)	문화예술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이 문화예술전반에 대한 지식이 많아졌다	0.583	0.740					0.952
		능력	(12)	문화예술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해석 및 감상능력이 생겼다	0.647	0.777					0.951
		자기표현	(13)	문화예술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의 자기표현 능력이 좋아졌다	0.669	0.766					0.951
		의사소통	(14)	문화예술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의 소통능력이 좋아졌다	0.746	0.767					0.951
		사교성	(15)	문화예술교육으로 학생들의 사교성이 좋아졌다	0.724	0.762					0.951
		협동성	(16)	문화예술교육으로 학생들의 협동능력이 좋아졌다	0.663	0.731					0.952
학교 차원	교육자 에의 효과	교육내 용과 방법	(32)	예술강사사업이 학교에 새로운 교육내용과 방법의 도입을 많이 가져왔다	0.572	0.740	20	0.951	0.899	0.949	

		전문성	(33)	예술강사사업이 강사의 능력과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	0.736	0.755				0.949
		예술능력	(34)	예술강사사업으로 인해 강사들의 문화예술능력이 높아졌다	0.678	0.711				0.949
		정체성	(35)	예술강사사업으로 인해 교육자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0.727	0.699				0.949
		만족감	(36)	예술강사로서 활동하면서 만족감을 느낀다	0.720	0.699				0.949
		변화혁신	(37)	예술강사사업으로 인해 기존 교사들에게도 새로운 혁신과 변화가 발생했다.	0.687	0.757				0.948
		역량	(38)	예술강사사업으로 인해 기존 교사들의 역량이 향상되었다	0.713	0.740				0.949
		업무부담	(39)	예술강사사업으로 인해 기존 교사들의 업무부담이 줄어들었다	0.329	0.503				0.952
		협업효과	(40)	예술강사들과 기존 정규교사간 협업이 잘 이루어져 교육에 상승효과가 있었다	0.575	0.708				0.949
	교육기관에의 효과	인력	(41)	예술강사사업으로 인해 학교의 전반적인 문화예술교육 역량이 향상되었다	0.641	0.793		0.809		0.948
		문화1	(42)	예술강사사업으로 인해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는 학교 문화라는 것이 형성되었다	0.652	0.790			0.948	
		문화2	(43)	예술강사사업으로 인해 학생들 사이에 분위기가 좋아졌다	0.528	0.722			0.949	
		환경	(44)	예술강사사업으로 인해 문화예술교육 관련 시설 및 도구가 좋아졌다	0.663	0.638			0.950	
	교육프로그램에의 효과	양적증가	(45)	예술강사사업으로 인해 학교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해 졌다.	0.617	0.740		0.904		0.949
		보완	(46)	예술강사사업이 기존 문화예술교육의 공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다.	0.679	0.748			0.949	
		공동교과	(47)	예술강사사업으로 인해 교사와 강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과목이 늘었다	0.643	0.658			0.950	
		연계	(48)	예술강사사업에서 문화예술과 교육의 연계로 인해 교육에 긍정적 효과가 발생했다.	0.709	0.809			0.948	
		수요증가	(49)	예술강사사업으로 인해 문화예술교육의 욕구와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0.743	0.793			0.948	
		질적수준	(50)	예술강사사업으로 인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었다.	0.774	0.812			0.948	
		교육방법	(51)	예술강사사업으로 인해 문화예술교육 방법의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0.726	0.778			0.948	
지역사회공동체차	지역내 예술활동	참여	(52)	예술강사사업을 계기로 예술강사들이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0.670	0.788	16	0.966	0.928	0.964
		활용	(53)	예술강사사업을 계기로 지역'내' 문화예술인력의 활용이 증가하였다	0.733	0.848				0.963

원	네트워크 및 협력	(54)	예술강사사업은 지역내 문화예술가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였다.	0.741	0.837	0.956	0.964			
		(55)	예술강사사업으로 인해 지역사회내 문화예술 주체와 협력 기회가 많아졌다	0.741	0.841		0.963			
	지역내 문화기반	인식제고	(56)	예술강사사업이 지역내 문화예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0.740		0.843	0.964		
		반응	(57)	예술강사사업에 대해 지역사회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0.657		0.794	0.964		
		양적증가	(58)	예술강사사업으로 인해 지역내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양적으로 증가하였다	0.781		0.841	0.964		
		질적제고	(59)	예술강사사업으로 인해 지역내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개선되었다	0.794		0.862	0.963		
		지역민 참여	(60)	예술강사의 지역내 문화예술활동 증가로 지역민의 문화예술활동 참여가 증가하였다.	0.801		0.880	0.963		
		지역민 삶의질	(61)	예술강사의 지역내 문화예술활동 증가로 지역민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	0.759		0.865	0.963		
		지역재 발견	(62)	예술강사의 활동으로 지역고유의 문화예술이 재발견되었다	0.695		0.829	0.964		
		고용	(63)	예술강사사업은 지역내 예술인들의 고용에 기여하였다	0.755		0.674	0.966		
		지역경제	(64)	예술강사사업은 지역경제에 일정 부분 기여한다	0.817		0.744	0.965		
		산업발전	(65)	예술강사사업으로 인해 지역내 문화예술산업 발전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0.782		0.814	0.964		
	지방정부	(66)	예술강사사업을 계기로 지방정부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높아졌다.	0.734	0.806		0.964			
문화격차	(67)	예술강사사업은 중앙과 지방간에 문화예술격차 해소에 기여하였다	0.654	0.773	0.965					
문화차원	생산	(17)	학생들은 문화예술교육 이후에 배운 것을 바탕으로 직접 문화예술활동을 했다	0.704	0.839	3	0.850	0.850	0.846	
	소비증가1	(18)	학생들은 문화예술교육 이후에도 관련 문화예술활동(전시회, 음악회)에 참여한다	0.824	0.908				0.736	
	소비증가2	(19)	학생들 사이에 문화예술활동이 증가했다(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얘기가 늘어났다)	0.780	0.883				0.781	
사회차원	학생의 효과	행복	(20)	문화예술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이 더 행복해진 것 같다	0.762	0.598	12	0.908	0.889	0.906
		만족	(21)	문화예술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이 자기 삶에 더 만족하는 것 같다	0.741	0.599				0.906
	예술강사와의 효과	행복	(22)	문화예술교육으로 인해 나는 행복감을 더 느끼게 되었다	0.730	0.745			0.903	0.900
		만족	(23)	문화예술교육으로 인해 내 삶의 만족감이 높	0.766	0.782				0.898

		아졌다					
	스트레스	(24) 문화예술교육으로 인해 내가 느끼는 스트레스가 줄었다	0.765	0.755			0.898
	안정감	(25) 문화예술교육으로 인해 나는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게 되었다	0.779	0.797			0.896
	수입	(26) 문화예술교육으로 인해 예술강사들의 수입이 증대되었다	0.687	0.710			0.898
	고용안정	(27) 예술강사 사업으로 인해 예술강사들의 고용이 안정되었다	0.838	0.750			0.897
	고용의 질	(28) 예술강사 사업으로 인해 예술강사의 고용의 질이 개선되었다	0.856	0.768			0.895
	사회적 지위	(29) 예술강사 사업으로 인해 예술강사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	0.713	0.727			0.898
사회전체의 효과	사회적 가치	(30) 예술강사 사업이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켰다	0.676	0.684		0.723	0.901
	사회적 포용	(31) 예술강사사업은 사회적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하였다.	0.604	0.575			0.906

IV. 예술강사가 인식한 예술강사지원사업의 효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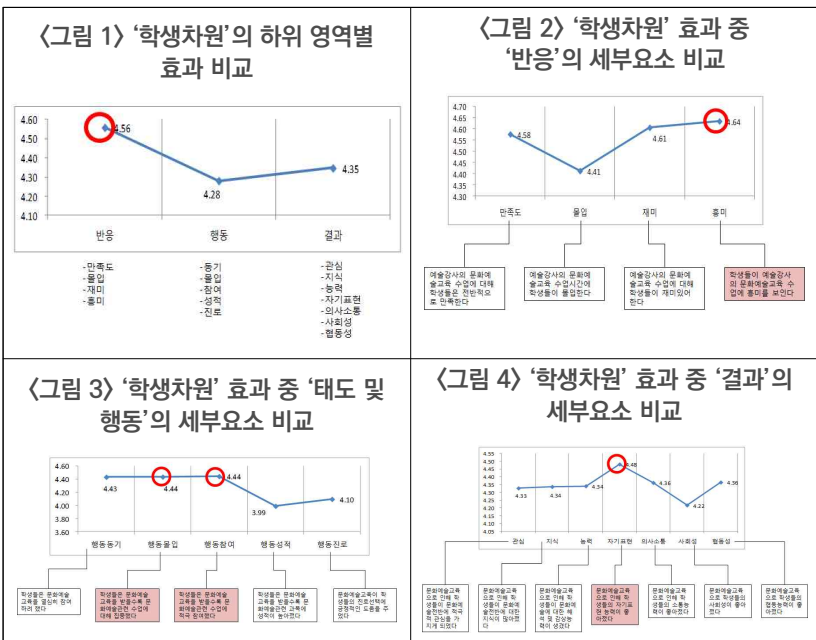
1. 예술강사가 인식한 효과에 대한 평균비교

1) 학생차원(교육차원) 효과

예술강사지원사업은 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문화향유 능력을 제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학생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학생차원의 효과는 반응, 행동, 결과의 차원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세부 항목 중 어떠한 항목의 효과를 예술강사가 높게 인식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반응’차원의 효과는 예술강사가 담당하고 있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만족도, 몰입, 재미, 흥미 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한다. 한편, ‘행동’차원의 효과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결과’차원의 효과에서는 수업의 시행 이후 학생들의 예술성 및 사회성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학생차원의 효과는 ‘반응’차원의 효과가 ‘행동’ 및 ‘결과’차원의 효과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즉,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느끼

거나 몰입하는 정도가 타 영역의 효과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예술강사지원사업에서 실행하는 수업이 기존 교과중심의 수업과는 다른 차별적인 커리큘럼을 구성하기 때문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즉, 예술강사가 진행하는 수업은 교과서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존 수업과는 다르게 감상과 체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유발이 용이하다. 또한 '반응'차원의 효과는 예술강사가 수업의 진행과정에서 학생들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고 타 차원의 효과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효과가 높게 인식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반응'차원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지표에 대해 예술강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분석을 시행한 결과 '흥미'는 4.6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재미', '만족도' 등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잇고 있다. 반면, 학생들이 수업에 '몰입'하는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은 새로운 수업방식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느끼는 반면 이에 대한 적응 수준이 낮기 때문에 몰입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술강사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태도 및 행동'이 변화하고 있는지 각 세부지표를 통해 분석을 시행한 결과 예술강사는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는 '몰입'과 수업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여’를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분석결과에 따르면 ‘반응’차원의 효과에서 인식한 몰입수준에 비해 근소하게 높은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업이 지속될수록 학생들의 몰입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에 ‘성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하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성적과 관련해서 예술강사가 인식할 수 있는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과’와 관련된 세부지표의 분석결과, 예술강사는 ‘자기표현’ 효과를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생들 간의 사회성을 의미하는 ‘사회성’ 향상 효과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문화예술은 감정표출이 즉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표현이 상대적으로 타 요소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예술강사가 진행하는 수업은 모둠 또는 팀을 이루어서 활동하게 하는 방식이 많기 때문에 학생의 협동능력 향상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목적인 인성 함양이라는 측면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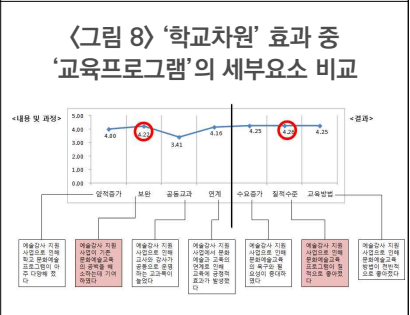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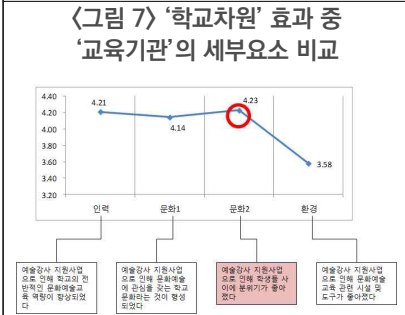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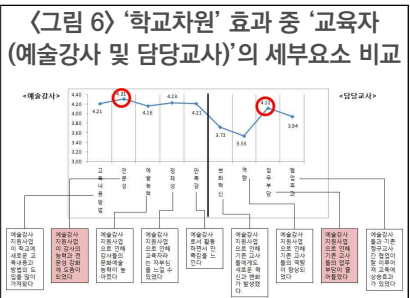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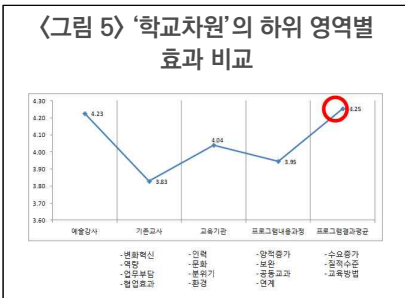
2) 학교차원의 효과

학교 차원의 효과는 교육자(예술강사, 기존교사), 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내용 및 결과 등의 하위 영역으로 나뉜다. 분석결과, 예술강사들은 예술강사지원사업이 학교에 미치는 효과의 하위차원 중 ‘기존교사’에게 미치는 효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프로그램결과’의 경우 4.25점으로 가장 높은 평균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술강사’에게 미치는 효과는 4.23점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프로그램의 내용 및 과정’ 영역에 대한 평균은 3.95점이며 기존 교사에 대한 효과는 3.83점으로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술강사지원사업을 통해 교사의 역량 향상이나 변화를 이끌기 보다는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와 예술강사의 전문성, 역량 향상 등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차원 효과의 하위영역을 구성하는 세부지표별로 예술강사가 인식하는 효과의 수준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예술강사가 인식하고 있는 예술강사지원

6) 이 때 ‘몰입’은 ‘반응’차원에서의 몰입과 상반되는 결과를 갖는 것으로 보이지만 응답 값의 경우 ‘반응’에서의 몰입은 4.41점이며 ‘행동 및 태도’에서의 몰입은 4.44점으로 유사한 값을 갖고 있다.

사업이 '교육자'에 미치는 효과는 문화예술교육 수업을 진행하는 '예술강사'와 관련한 효과와 사업을 진행하는 학교의 '담당교사'와 관련된 효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예술강사들은 '예술강사'와 관련된 세부적 효과가 '담당교사'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담당교사'의 변화와 관련한 효과의 경우 예술강사는 기존 교사들의 '업무부담' 경감과 '협업효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존교사에게 새로운 '변화혁신'의 자극을 제공하거나 그들의 '역량'을 향상시킨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예술강사'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예술강사는 자신의 '전문성' 강화와 교육자라는 '정체성' 확립에 관한 효과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예술능력에 있어서는 4.16점으로 예술강사에 미치는 효과의 세부 지표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교육자로서 예술강사의 활동에 집중할수록 문화예술을 창작하는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이 저해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⁷⁾



7) 김상희(2010)의 연구에서는 예술강사의 정체성을 예술가와 예술교육가로 구분하여 성별, 연령, 예술활동, 교원자격증 취득 여부 등에 따라 정체성이 어떻게 확립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예술활동이 활발할수록 자신을 예술가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술강사의 예술활동이 활발할수록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교육자로서의 정체성은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하위차원의 효과로 교육기관에 미치는 효과를 예술강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세부지표별(인력, 문화1, 문화2, 환경)로 분석한 결과, 예술강사는 학생들 간의 '분위기(문화2)'가 개선되는 것이 가장 효과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Gibson & Larson(2008)이 예술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예술강사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학교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시설 및 도구가 개선되었는지를 측정하는 '환경' 지표의 경우 효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예술강사지원사업을 신청함으로써 기자재 지원 등 학교에서 시설이 개선될 수는 있으나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시설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프로그램'에 미치는 효과는 '교육내용 및 과정'과 '교육결과'와 관련된 효과로 구분되어 분석이 시행된다. 분석 결과, '교육결과'와 관련한 효과가 미세하게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과정보다는 사업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에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질적수준' 제고에 사업의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교육내용 및 과정'에 있어서는 기존 문화예술교육의 한계를 '보완' 하는 측면에서 효과가 가장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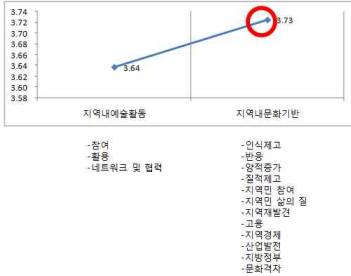
3) 지역공동체차원 효과

예술강사지원사업이 '지역사회공동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예술강사들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이를 '지역 내 예술활동'과 '지역 내 문화기반'으로 세분화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예술강사는 '지역 내 예술활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역 내 문화기반'에 미친 효과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지역 내 예술강사가 참여하는 문화활동의 증가나 협력체계의 강화 등을 꾀하기보다는 관련 단체, 기관, 주민 등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 향상, 경제적 효과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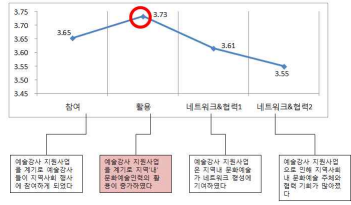
지역공동체 차원의 효과를 각 하위영역별로 분석을 시행한 결과 예술강사들은 지역 내 예술활동의 세부지표들 중 문화예술인력의 '활용', 예술강사들의 지역 사회에서의 '참여' 등에 상대적으로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예술강사들은 지역 내 문화예술인력 간 네트워크 형성 및 협력수준의 제고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역사회공동체에의 효과 중 '지역 내 문화기반'과 관련한 효과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예술강사는 지역 고유의 문화예술 재발견 즉, '지역

재발견'과 관련한 효과를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긍정적 '반응'을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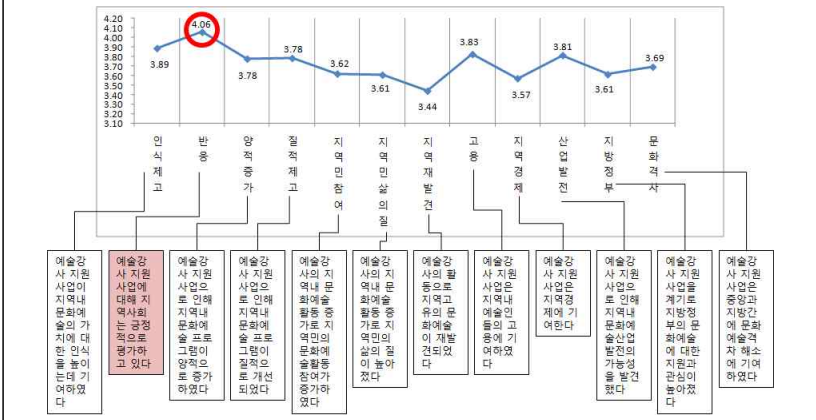
〈그림 9〉 '지역공동체차원'의 하위 영역별 효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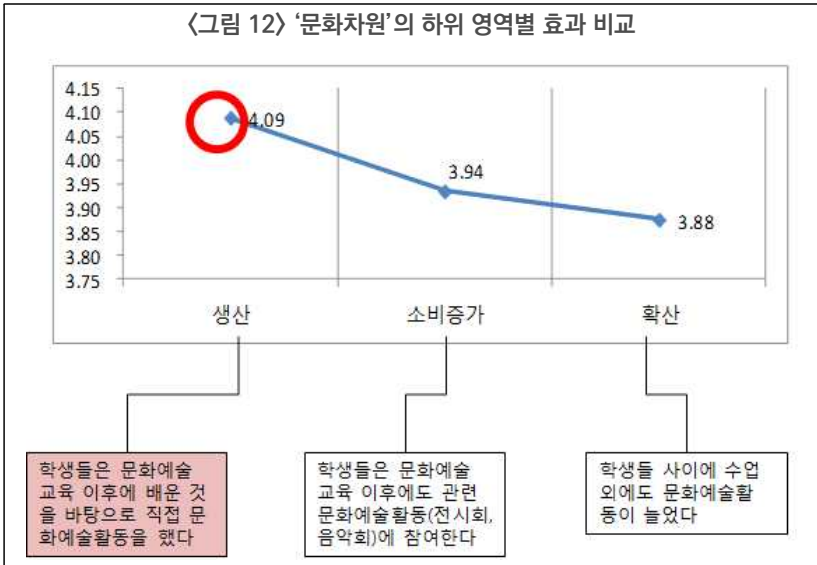
〈그림 10〉 '지역공동체차원' 효과 중 '지역 내 예술활동'의 세부요소 비교



〈그림 11〉 '지역공동체차원' 효과 중 '지역 내 문화기반'의 세부요소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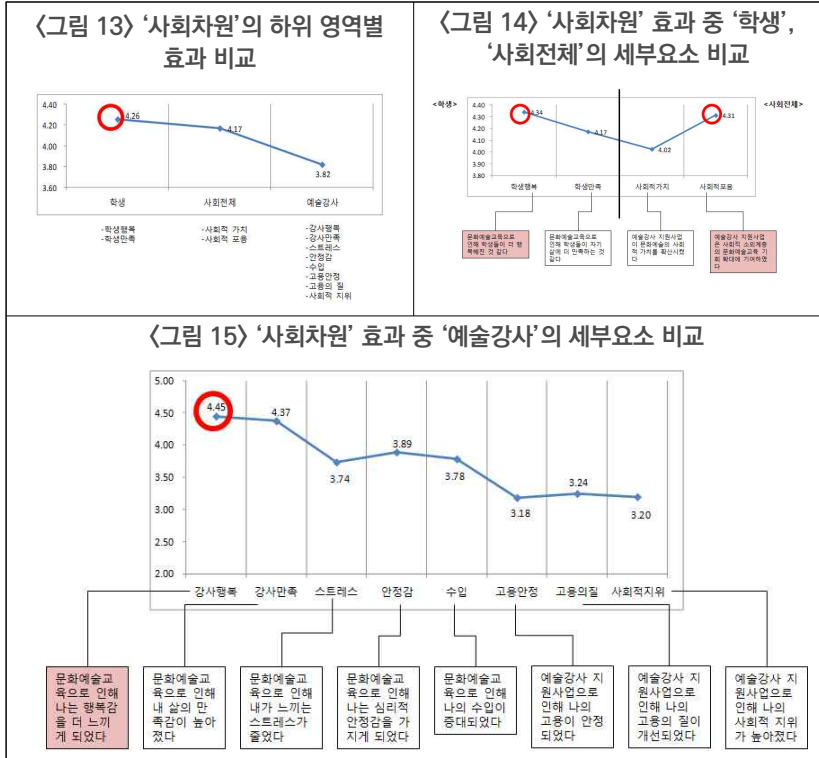


4) 문화차원 효과



예술강사지원사업의 주요 목적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와 더불어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문화예술향유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즉, 학생들이 예술강사지원사업에 참여한 이후 문화예술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소비 및 확산하는 과정에 대한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문화차원의 효과를 ‘생산’, ‘소비’, ‘확산’ 등의 세부지표로 구성하여 예술강사가 문화차원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예술활동을 직접 실행하는 것과 관련된 ‘생산’ 측면의 효과가 ‘소비증가’와 ‘확산’의 효과에 비하여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5) 사회차원의 효과



문화예술은 사회·경제적 가치 및 효과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을 향유함으로써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강조하고는 한다.8)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예술강사의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효과를 '학생' 차원의 효과와 '사회' 차원의 효과, '예술강사'에 대한 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사회'적 차원의 효과를 분석한다. 예술강사가 예술강사지원사업이 사회차원에 어떤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들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의 만족과 행복과

8) 정현수 외(2013)는 문화예술교육이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학생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비교함으로써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참여집단이 유사집단보다 높은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에 대해서 5점 만점으로 참여집단은 3.50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서 유사집단은 3.38점으로 보여주고 있다.

관련된 '학생'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가치 및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참여 확대 등과 관련된 '사회전체'에 미치는 효과, 예술강사의 주관적 삶의 질(행복, 만족, 스트레스, 안정감)과 객관적 삶의 질(수입, 고용안정, 고용의 질, 사회적 지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예술강사'에 미치는 효과 등이다. 분석을 시행한 결과 예술강사들은 '학생', '사회전체', '예술강사' 순으로 사업의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예술강사들은 예술강사지원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행복감이 삶의 만족도에 비해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소외계층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문화예술이 갖는 사회적 가치의 확대보다 높은 효과를 갖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 차원에서 예술강사의 삶의 질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예술강사는 '주관적 삶의 질'에 비해 '객관적 삶에 질'과 관련한 효과를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사행복'과 '강사만족'과 관련한 효과는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과 관련한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다.

2. 예술강사가 인식한 효과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예술강사지원사업의 효과에 대해 740명의 예술강사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업의 효과를 학생, 학교, 지역공동체, 문화, 사회적 차원의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6>부터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학생차원의 효과는 여성, 출강학교수준, 지역(광주, 충남)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반응영역의 경우에는 여성, 보유자격증, 분야(연극), 지역(광주, 충남) 등이 예술강사가 인식하는 학생 차원의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의 경우 여성이고 출강학교수준이 높을 때 예술강사가 인식하고 있는 효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결과의 경우 여성 예술강사일 때 사업의 효과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차원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반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갖는 변수들이 행동 및 결과영역에서 보다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차원에 미치는 효과의 대부분은 반응영역에서 기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행동 및 결과 영역의 경우 사업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서서히 나타나는 반면 효과 반응 영역에서 즉각적으로 학생들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학생들의 흥미 및 만족도 등은 예술강사들이 수업을 통해 인지할 수 있으나 행동 및 결과의 경우 관찰할 수 있

는 교사에 비해 수업시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반응영역에서의 효과가 보다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교 내 교사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보다 장기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학교차원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예술강사들은 연령, 여성, 출강학교수준 등이 학교에서 나타나는 사업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예술장르별로는 국악, 미술, 만화/애니, 공예 분야에서, 지역별로는 광주, 강원 지역 등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들이 학교차원의 효과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 교육자에 미치는 효과는 여성, 출강학교 수준, 국악, 연극 등의 분야일 때 높게 인식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이 아닌 광주와 강원, 경기, 충남 지역에서 활동할 때 효과를 높게 인식하고 있다. 교육기관의 경우 연령, 여성, 출강학교 소재지가 상대적으로 시골에 위치하며 출강학교 수준이 높을 때 사업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예술영역별로는 연극, 공예, 사진을 제외한 영역일 때 교육기관에 미치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역별로는 광주 지역이 교육기관의 효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에 미치는 효과의 경우에도 연령, 여성, 출강학교 소재지, 출강학교 수준 등이 사업의 효과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악, 공예, 만화/애니 등의 장르의 예술강사들이 교육프로그램 효과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변수는 교육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학교차원의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특이점은 교육기관과 프로그램 영역에 비해 교육자 영역에서 적은 예술장르에서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교육자에게 나타나는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예술강사들은 국악, 연극, 미술 등의 장르에서만 사업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악, 연극, 미술 등의 경우 기본 교과내용과의 연계를 통해 수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교육자와 예술강사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즉, 기본 교과의 내용을 연계하여 수업을 진행할 때 교사와 예술강사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예술강사의 경우 교사가 갖는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교사의 경우 예술강사의 예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도모할 수 있다.

한편, 지역공동체차원의 효과의 경우 여성, 출강학교 수준, 국악의 영역에서 예술강사들이 사업의 효과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위영역인 지역 내 문화기반에 대한 분석결과와 비교할 때 동일한 요인들이 사업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 내 예술활동에서 나타나는 사업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 요인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하여 볼 때, 지역차원의 효과에

대해서는 국악 장르에 해당하는 예술강사가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나타나는 사업효과가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예술강사지원사업이 국악강사풀체가 모태인 만큼 지원 단체가 보다 체계적이며 관련 인력자원이 타 분야에 비해 풍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예술강사지원사업의 시행 경험이 풍부하고 다른 문화예술분야에 비해 체계적인 지원방식에 의해 국악 분야의 예술강사들이 지역 내 네트워크 형성 및 고용에 대한 효과를 타 분야에 비해 높게 인식할 수 있다. 또한 국악은 전통적인 예술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국악의 향유 및 교육에 있어 다른 분야에 비해 소외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지역민의 인식전환, 긍정적인 반응 등 사업을 통해 나타나는 효과가 다른 분야에 비해 높게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문화차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예술강사들은 출강학교가 대도시보다 시골에 가까울수록, 출강학교 수준이 좋을수록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영화, 국악 영역,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일수록 ‘전체 문화차원 효과’를 (+)의 방향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강학교수준과 소재지가 문화차원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다음과 같은 바를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대도시인 경우에는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반면 도서벽지에 위치한 경우에는 문화예술향유 기회, 인프라가 미비하다. 따라서 비도시 지역에서는 문화예술을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효과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술강사가 인식한 ‘사회차원’의 효과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결과, 연령, 여성, 출강학교 수준, 특정 예술영역(국악, 연극, 공예 등)과 광주, 강원, 충남,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일수록 사회차원에서 발현되는 예술강사지원사업의 효과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차원 효과의 하위영역에서 ‘학생’은 성별만이 사업효과에 대한 예술강사의 인식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술강사’영역에서는 연령, 성별, 학교 소재지 및 수준 등이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연령, 여성, 소득수준, 만화/애니, 국악, 연극 등의 분야 등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각 차원별, 하위영역별로 예술강사가 인식하는 사업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각각 상이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각 차원별로 예술 분야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하위영역에 따라서도 각기 다른 분석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석결과에서 공통적으로 학교의 소재지가 시골이며 학교 수준이 높을 때 예술강사지원사업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문화예술교육 및 향유 기회가 소도시 내지는 시골지역에서 대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예술강사지원사업에 대한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난 것으

로 보인다. 게다가 학교의 수준은 예술강사지원사업과 관련된 인프라와도 연관될 수 있다. 즉, 수업과 관계된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시설에 따라서 사업 효과에 대해 예술강사의 인식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예술강사의 성별(여성), 연령과 더불어 자격증 수 등이 간헐적으로 사업의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예술강사의 전문성이 높을수록 사업효과에 대해 높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예술강사가 인식한 학생차원의 효과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분석결과

종속변수	# 학생차원효과			반응			행동			결과			
	비표준화	표준화	유의 확률	비표준화	표준화	유의 확률	비표준화	표준화	유의 확률	비표준화	표준화	유의 확률	
	B	베타		B	베타		B	베타		B	베타		
(상수)	3.489***		0.000	3.391***		0.000	3.621***		0.000	3.444***		0.000	
만나이(세)	0.004	0.051	0.241	0.003	0.039	0.369	0.003	0.039	0.370	0.005	0.057	0.190	
성별	남자=0, 여자=1	0.199***	0.140	0.000	0.211***	0.143	0.000	0.214**	0.132	0.001	0.181**	0.118	0.003
연간소득수준	일천만원이하=1 ~ 이억만원이상=12	0.003	0.008	0.829	0.000	0.000	0.996	0.005	0.013	0.726	0.003	0.007	0.853
출강학교 소재지	시골=1, 중도시=2, 대도시=3	-0.023	-0.033	0.539	-0.015	-0.020	0.708	-0.018	-0.022	0.672	-0.031	-0.041	0.449
출강학교 수준	좋은=1, 비수=2, 못한=3(역척도)	-0.071	-0.065	0.087	-0.040	-0.035	0.349	-0.092*	-0.075	0.048	-0.073	-0.062	0.104
학력수준	초등학교중퇴=1 ~ 박사과정이상=14	0.018	0.039	0.333	0.024	0.049	0.216	0.002	0.004	0.913	0.026	0.052	0.196
예술강사 경력(년)		0.004	0.017	0.700	-0.005	-0.023	0.605	0.007	0.028	0.514	0.006	0.027	0.540
보유자격증_민간(개)		0.022	0.074	0.075	0.029*	0.094	0.025	0.020	0.060	0.147	0.019	0.060	0.152
보유자격증_국가공인(개)		0.021	0.048	0.229	0.013	0.028	0.481	0.018	0.036	0.363	0.029	0.059	0.141
문화예술교육 영역 (기준: 디자인)	국악	0.150	0.128	0.222	0.257**	0.212	0.043	0.188	0.141	0.176	0.064	0.050	0.633
	연극	0.225	0.160	0.077	0.362**	0.250	0.006	0.179	0.113	0.211	0.181	0.119	0.190
	미술	0.128	0.017	0.670	0.226	0.028	0.465	0.185	0.021	0.585	0.032	0.004	0.922
	영화	0.128	0.066	0.363	0.255	0.108	0.080	0.053	0.021	0.738	0.111	0.045	0.471
	무용	-0.115	-0.076	0.358	-0.032	-0.020	0.807	-0.145	-0.085	0.307	-0.140	-0.086	0.304
	만화애니메이션	0.097	0.066	0.458	0.253	0.142	0.059	0.147	0.075	0.316	-0.027	-0.015	0.849
	공예	0.056	0.019	0.711	0.200	0.067	0.202	0.084	0.026	0.622	-0.044	-0.014	0.791
	사진	-0.098	-0.013	0.749	0.054	0.007	0.863	-0.133	-0.015	0.698	-0.153	-0.018	0.644
주활동 지역 (기준: 제주)	서울	0.170	0.117	0.322	0.266	0.179	0.133	0.163	0.100	0.399	0.119	0.076	0.523
	인천	-0.057	-0.019	0.767	0.041	0.013	0.839	-0.131	-0.039	0.548	-0.060	-0.019	0.775
	대전	0.093	0.038	0.614	0.199	0.078	0.296	0.023	0.008	0.912	0.083	0.031	0.678

대구	0.069	0.027	0.713	0.200	0.075	0.302	-0.062	-0.021	0.769	0.089	0.032	0.664
광주	0.365*	0.146	0.047	0.434*	0.169	0.022	0.332	0.118	0.109	0.351	0.130	0.079
울산	0.020	0.004	0.937	0.104	0.020	0.683	-0.001	0.000	0.998	-0.014	-0.003	0.958
부산	0.133	0.066	0.457	0.217	0.105	0.240	0.046	0.020	0.819	0.148	0.068	0.447
강원	0.129	0.052	0.470	0.179	0.071	0.329	0.125	0.045	0.533	0.103	0.039	0.595
경기	0.180	0.088	0.299	0.279	0.132	0.120	0.172	0.074	0.380	0.130	0.059	0.490
충북	0.077	0.028	0.674	0.119	0.042	0.531	0.044	0.014	0.832	0.078	0.026	0.698
충남	0.303	0.122	0.090	0.409*	0.159	0.027	0.287	0.101	0.156	0.257	0.095	0.187
경북	0.169	0.087	0.321	0.184	0.092	0.295	0.127	0.058	0.508	0.191	0.091	0.301
경남	0.230	0.088	0.206	0.273	0.101	0.145	0.186	0.063	0.363	0.236	0.083	0.233
전북	0.253	0.112	0.148	0.337	0.144	0.063	0.297	0.116	0.133	0.177	0.072	0.354
전남	0.263	0.106	0.143	0.325	0.126	0.080	0.247	0.087	0.223	0.239	0.089	0.221
R제곱	0.085			0.083			0.092			0.071		
표본수	740			740			740			740		

주: *p<.05, **p<.01, ***p<.001

〈표 7〉 예술강사가 인식한 학교차원의 효과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분석결과

종속변수	# 학교차원효과			교육자			교육기관			프로그램			
	비표준화	표준화	유의 확률	비표준화	표준화	유의 확률	비표준화	표준화	유의 확률	비표준화	표준화	유의 확률	
	B	베타		B	베타		B	베타		B	베타		
(상수)	3.314***		0.000	3.391***		0.000	3.280***		0.000	3.235***		0.000	
만나이(세)	0.008*	0.091	0.031	0.006	0.065	0.123	0.008	0.081	0.053	0.011**	0.111	0.009	
성별	0.268***	0.162	0.000	0.303***	0.171	0.000	0.243***	0.138	0.000	0.238**	0.133	0.001	
연간소득수준	일천만원이하=1 ~ 이억원이상=12	0.004	0.010	0.783	0.003	0.007	0.845	0.001	0.001	0.972	0.008	0.017	0.641
출강학교 소재지	서울=1, 중소도시=2, 대도시=3	-0.077	-0.094	0.071	-0.065	-0.073	0.159	-0.104*	-0.119	0.022	-0.078	-0.088	0.093
출강학교 수준	좋은=1, 비슷=2, 못함=3(역척도)	-0.148**	-0.117	0.002	-0.174**	-0.129	0.001	-0.149**	-0.111	0.003	-0.114*	-0.083	0.025
학력수준	초등학교중퇴=1 ~ 박사과정이상=14	-0.022	-0.041	0.294	-0.027	-0.046	0.241	-0.009	-0.016	0.681	-0.024	-0.041	0.298
예술강사 경력(년)		0.004	0.014	0.734	-0.005	-0.018	0.676	0.011	0.043	0.311	0.010	0.037	0.385
보유자격증_민간(개)		0.022	0.063	0.120	0.017	0.047	0.250	0.026	0.071	0.083	0.025	0.067	0.100
보유자격증_국가공인(개)		0.021	0.041	0.291	0.033	0.059	0.129	0.010	0.018	0.636	0.013	0.023	0.547
문화예술교육 영역(기준: 디지털)	국악	0.475**	0.347	0.001	0.377*	0.259	0.012	0.560***	0.387	0.000	0.553***	0.373	0.000
	연극	0.279	0.171	0.053	0.266	0.153	0.085	0.278	0.161	0.069	0.296	0.167	0.059

미술	0.716*	0.080	0.035	0.792*	0.083	0.030	0.733*	0.077	0.042	0.611	0.063	0.098	
영화	0.293	0.110	0.067	0.173	0.061	0.314	0.418*	0.148	0.014	0.375*	0.130	0.031	
무용	0.271	0.154	0.057	0.223	0.119	0.145	0.308*	0.166	0.041	0.311*	0.163	0.045	
만화애니메이션	0.307*	0.153	0.038	0.221	0.103	0.163	0.350*	0.165	0.026	0.391*	0.180	0.015	
공예	0.362*	0.107	0.035	0.304	0.084	0.100	0.341	0.095	0.061	0.449*	0.123	0.016	
사진	-0.125	-0.014	0.717	-0.273	-0.029	0.462	0.017	0.002	0.963	-0.016	-0.002	0.967	
주활동 지역 (기준: 제주)	서울	0.224	0.133	0.249	0.311	0.174	0.136	0.144	0.081	0.485	0.158	0.087	0.455
	인천	0.074	0.021	0.737	0.242	0.066	0.303	-0.008	-0.002	0.971	-0.097	-0.026	0.683
	대전	0.251	0.088	0.229	0.381	0.125	0.090	0.168	0.055	0.449	0.133	0.043	0.560
	대구	0.316	0.105	0.137	0.447	0.139	0.051	0.205	0.064	0.364	0.212	0.065	0.360
	광주	0.495*	0.171	0.017	0.622**	0.201	0.005	0.410	0.134	0.063	0.383	0.122	0.091
	울산	0.141	0.024	0.615	0.285	0.045	0.343	0.081	0.013	0.784	-0.010	-0.002	0.974
	부산	0.304	0.130	0.132	0.412	0.166	0.058	0.237	0.096	0.268	0.204	0.081	0.352
	강원	0.398*	0.139	0.049	0.519*	0.170	0.017	0.219	0.072	0.307	0.344	0.111	0.117
	경기	0.346	0.145	0.079	0.427*	0.168	0.043	0.247	0.098	0.235	0.297	0.115	0.165
	충북	0.092	0.029	0.661	0.153	0.045	0.494	0.000	0.000	0.999	0.065	0.019	0.775
	충남	0.360	0.124	0.076	0.436*	0.141	0.046	0.230	0.075	0.286	0.339	0.108	0.124
	경북	0.225	0.100	0.243	0.370	0.154	0.074	0.087	0.036	0.671	0.116	0.048	0.580
	경남	0.309	0.101	0.134	0.428	0.132	0.053	0.160	0.049	0.465	0.241	0.073	0.283
	전북	0.376	0.143	0.058	0.454	0.161	0.033	0.329	0.118	0.118	0.304	0.106	0.159
	전남	0.138	0.047	0.499	0.239	0.077	0.274	0.064	0.021	0.766	0.049	0.016	0.825
	R제곱	0.131			0.118			0.127			0.123		
표본수	740			740			740			740			

주: *p<.05, **p<.01, ***p<.001

〈표 8〉 예술강사가 인식한 지역공동체차원 및 문화차원의 효과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분석결과

종속변수	# 지역공동체차원효과			지역내예술활동			지역내문화기반			# 문화차원효과			
	비표준화	표준화	유의	비표준화	표준화	유의	비표준화	표준화	유의	비표준화	표준화	유의	
	B	베타	확률	B	베타	확률	B	베타	확률	B	베타	확률	
(상수)	3.389***		0.000	3.329***		0.000	3.404***		0.000	3.574***		0.000	
만나이(세)	0.004	0.034	0.424	0.000	0.000	0.997	0.005	0.046	0.284	0.005	0.046	0.290	
성별	남자=0, 여자=1	0.198*	0.091	0.021	0.166	0.066	0.095	0.209*	0.096	0.014	0.043	0.021	0.595
연간소득수준	일천만원이하=1 ~ 이역원이상=12	0.019	0.034	0.358	0.017	0.027	0.470	0.019	0.035	0.341	-0.005	-0.009	0.807
출강학교 소재지	시골=1, 중도시=2,	-0.065	-0.060	0.260	-0.089	-0.071	0.185	-0.057	-0.052	0.323	-0.112*	-0.109	0.039

	대도시=3												
출강학교 수준	졸음=1, 비숙=2, 못함=3(역척도)	-0.193**	-0.115	0.002	-0.143	-0.075	0.050	-0.209**	-0.125	0.001	-0.148*	-0.094	0.013
학력수준	초등학교중퇴=1 ~ 박사과정이상=14	-0.015	-0.021	0.603	-0.004	-0.004	0.914	-0.019	-0.026	0.513	0.003	0.005	0.909
예술강사 경력(년)		0.012	0.035	0.414	0.019	0.051	0.248	0.009	0.028	0.514	0.003	0.009	0.842
보유자격증_민간(개)		0.015	0.034	0.421	0.008	0.015	0.728	0.018	0.039	0.347	0.014	0.032	0.441
보유자격증_국가공인(개)		0.047	0.068	0.085	0.039	0.049	0.221	0.050	0.072	0.067	0.032	0.049	0.216
문화예술교육 영역(기준: 디자인)	국악	0.404*	0.224	0.032	0.404	0.195	0.064	0.403*	0.224	0.032	0.446*	0.264	0.012
	연극	0.189	0.088	0.330	0.155	0.063	0.491	0.200	0.093	0.300	0.301	0.149	0.098
	미술	0.701	0.060	0.126	0.343	0.025	0.518	0.821	0.070	0.072	0.608	0.055	0.158
	영화	0.243	0.069	0.259	0.200	0.050	0.422	0.257	0.073	0.231	0.459*	0.139	0.024
	무용	0.219	0.095	0.253	0.287	0.108	0.195	0.197	0.085	0.303	0.018	0.008	0.919
	만화애니메이션	0.246	0.093	0.216	0.229	0.075	0.321	0.252	0.096	0.203	0.123	0.049	0.511
	공예	0.283	0.064	0.222	0.393	0.077	0.143	0.245	0.055	0.287	0.328	0.078	0.132
	사진	-0.440	-0.037	0.344	-0.573	-0.042	0.287	-0.394	-0.034	0.395	0.106	0.010	0.808
주황등 지역 (기준: 제주)	서울	-0.119	-0.054	0.651	-0.148	-0.058	0.625	-0.109	-0.049	0.676	0.210	0.101	0.393
	인천	-0.065	-0.014	0.825	-0.043	-0.008	0.900	-0.073	-0.016	0.805	0.111	0.026	0.688
	대전	0.023	0.006	0.934	-0.073	-0.017	0.823	0.055	0.014	0.846	0.295	0.083	0.265
	대구	0.094	0.024	0.742	-0.019	-0.004	0.955	0.132	0.033	0.644	0.375	0.101	0.164
	광주	0.277	0.073	0.323	0.359	0.082	0.269	0.250	0.066	0.370	0.607*	0.169	0.021
	울산	0.072	0.009	0.848	-0.011	-0.001	0.979	0.100	0.013	0.790	0.085	0.012	0.809
	부산	0.063	0.021	0.816	0.052	0.015	0.870	0.067	0.022	0.804	0.222	0.077	0.385
	강원	0.162	0.043	0.551	0.150	0.035	0.634	0.166	0.044	0.539	0.230	0.065	0.369
	경기	-0.018	-0.006	0.947	0.058	0.016	0.849	-0.043	-0.014	0.870	0.306	0.104	0.219
	충북	-0.016	-0.004	0.955	-0.031	-0.006	0.924	-0.009	-0.002	0.973	0.268	0.068	0.312
	충남	0.118	0.031	0.665	0.213	0.049	0.501	0.087	0.023	0.749	0.329	0.092	0.200
	경북	0.036	0.012	0.889	-0.019	-0.006	0.950	0.055	0.019	0.830	0.357	0.128	0.144
	경남	0.067	0.017	0.809	0.022	0.005	0.946	0.083	0.021	0.764	0.293	0.078	0.262
	전북	0.315	0.091	0.240	0.286	0.072	0.356	0.326	0.094	0.222	0.369	0.113	0.142
전남	-0.081	-0.021	0.767	-0.041	-0.009	0.898	-0.094	-0.025	0.730	0.273	0.076	0.290	
R제곱		0.089			0.072			0.092			0.089		
표본수		740			740			740			740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9〉 예술강사가 인식한 사회차원의 효과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분석결과

종속변수		# 사회차원효과			학생			예술강사			사회전체		
		비표준화	표준화	유의 확률	비표준화	표준화	유의 확률	비표준화	표준화	유의 확률	비표준화	표준화	유의 확률
		B	베타		B	베타		B	베타		B	베타	
(상수)		2.741***		0.000	3.595***		0.000	2.436***		0.000	3.126***		0.000
만나이(세)		0.015***	0.155	0.000	0.002	0.017	0.701	0.019***	0.167	0.000	0.013**	0.117	0.007
성별	남자=0, 여자=1	0.287***	0.159	0.000	0.162*	0.086	0.030	0.347***	0.163	0.000	0.171*	0.084	0.033
연간소득수준	일천만원이하=1 ~ 이억만원이상=12	0.020	0.044	0.221	-0.003	-0.007	0.860	0.020	0.037	0.306	0.044*	0.087	0.020
출강학교 소재지	서울=1, 중소도시=2, 대도시=3	-0.088	-0.098	0.059	-0.041	-0.044	0.418	-0.113*	-0.107	0.037	-0.034	-0.033	0.530
출강학교 수준	좋은=1, 비순=2, 못한=3(역치도)	-0.144**	-0.105	0.005	-0.091	-0.063	0.100	-0.167**	-0.103	0.005	-0.108	-0.070	0.066
학력수준	초등학교중퇴=1 ~ 박사과정이상=14	-0.013	-0.023	0.560	0.030	0.048	0.237	-0.024	-0.034	0.372	-0.014	-0.021	0.598
예술강사 경력(년)		-0.004	-0.015	0.720	0.003	0.011	0.807	-0.005	-0.016	0.708	-0.008	-0.025	0.572
보유자격증_민간(개)		0.009	0.023	0.568	0.002	0.005	0.912	0.010	0.024	0.559	0.008	0.020	0.634
보유자격증_국가공인(개)		0.018	0.032	0.401	0.042	0.071	0.078	0.007	0.011	0.770	0.039	0.061	0.122
문화예술교육 영역 (기준: 다자인)	국악	0.387*	0.260	0.011	0.055	0.035	0.739	0.449*	0.256	0.011	0.472**	0.282	0.007
	연극	0.387*	0.218	0.013	0.115	0.062	0.498	0.437*	0.209	0.017	0.461*	0.231	0.011
	미술	0.335	0.034	0.364	0.100	0.010	0.802	0.325	0.028	0.450	0.593	0.054	0.165
	영화	0.176	0.061	0.309	-0.045	-0.015	0.809	0.188	0.055	0.355	0.357	0.110	0.076
	무용	0.169	0.089	0.272	-0.181	-0.091	0.279	0.248	0.110	0.170	0.212	0.099	0.236
	만화애니메이션	0.257	0.118	0.109	-0.056	-0.024	0.748	0.281	0.109	0.134	0.475*	0.194	0.011
	공예	0.391*	0.106	0.036	0.071	0.019	0.724	0.472*	0.109	0.031	0.379	0.092	0.080
주활동 지역 (기준: 제주)	사진	-0.256	-0.026	0.494	-0.149	-0.015	0.714	-0.303	-0.026	0.489	-0.167	-0.015	0.700
	서울	0.225	0.123	0.287	0.126	0.066	0.583	0.276	0.128	0.263	0.109	0.053	0.656
	인천	0.297	0.079	0.213	0.040	0.010	0.876	0.368	0.084	0.186	0.243	0.058	0.378
	대전	0.349	0.112	0.125	0.006	0.002	0.982	0.480	0.131	0.071	0.154	0.044	0.558
	대구	0.434	0.133	0.061	0.019	0.005	0.941	0.592*	0.154	0.029	0.206	0.056	0.443
	광주	0.529*	0.168	0.019	0.440	0.134	0.073	0.601*	0.162	0.023	0.320	0.090	0.222
	울산	0.475	0.073	0.118	-0.268	-0.040	0.416	0.704*	0.092	0.048	0.282	0.039	0.424
	부산	0.387	0.152	0.078	0.114	0.043	0.633	0.489	0.164	0.057	0.242	0.085	0.341
	강원	0.666**	0.214	0.002	0.050	0.016	0.832	0.863**	0.235	0.001	0.482	0.137	0.058
	경기	0.397	0.153	0.064	0.147	0.054	0.525	0.519*	0.170	0.038	0.149	0.051	0.548
충북	0.207	0.060	0.361	0.008	0.002	0.975	0.298	0.073	0.261	0.037	0.009	0.888	

충남	0.464*	0.147	0.035	0.328	0.100	0.169	0.521*	0.140	0.043	0.357	0.101	0.163
경북	0.368	0.150	0.079	0.105	0.041	0.645	0.486*	0.168	0.047	0.143	0.052	0.556
경남	0.459*	0.138	0.040	0.283	0.082	0.242	0.539*	0.138	0.039	0.304	0.081	0.241
전북	0.403	0.140	0.062	0.236	0.079	0.313	0.469	0.139	0.063	0.289	0.089	0.248
전남	0.287	0.091	0.195	0.141	0.043	0.557	0.398	0.107	0.124	-0.027	-0.008	0.917
R제곱	0.134			0.061			0.145			0.080		
표본수	740			740			740			740		

주: *p<.05, **p<.01, ***p<.001

V. 마치며: 시사점 및 후속논의

본 연구에서는 예술강사지원사업의 다차원적 효과를 사업과 관계된 다양한 행위자 가운데 예술강사의 인식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예술강사의 개인적인 특성들(연령, 성별 등)과 출강하는 학교의 특성(소재지 및 학교수준), 특정예술장르(국악, 연극, 미술, 공예) 등이 예술강사지원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는 요인들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인천 지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교의 소재지, 학교 수준으로 학교의 특성이 대부분의 효과차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술강사들은 비교적 학교 수준이 높고 비도시지역에 위치할 때 예술강사지원사업의 효과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를 통한 주요 시사점과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예술교육이 지역별로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수도권은 문화예술교육 및 향유기회가 높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 소재지, 수준 등이 예술강사지원사업의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동사업이 지역별 문화격차를 감소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지역규모가 사업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에 문화예술교육 기관의 수가 부족하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문화예술교육 수요에 비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환경에서는 예술강사지원사업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며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제고, 가치 확산 등 효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 한편, 학교 수준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학교들과의 상대적인 비교이기 때문에 지역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학교 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예술교육과 관계된 지원이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효과를 보다 높게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 사업대상을 선정할 때 이와 같은 학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특정 예술분야에서의 사업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문화예술분야에 따라 예술강사들이 사업의 효과를 인식하는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는 기본 교과와 접목이 용이한 국악, 연극 등의 예술분야에서 예술강사지원사업의 효과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분야에서 학생, 학교,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예술강사지원사업을 통해 기존 교과서 중심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보완하는 효과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예를 들어 국어수업과 연극수업의 접목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고취할 수 있다. 또한 이들 분야는 학교 차원에서 발표회와 같이 교육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 분야에 대한 학생 및 학교차원의 관심이 높고 이를 바탕으로 대부분 효과차원과 각각의 하위영역의 분석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국악, 연극, 무용 분야만이 기본교과와 연계되어 예술강사의 수업이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기본교과와 연계하는 수업이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⁹⁾ 즉, 기존의 주입식 교육방식을 변화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문화예술교육과의 융합은 매우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분야의 경우에도 기본교과에 연계하여 수업을 진행한다면 교육의 효과가 보다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국어 교과내용과 영화분야의 연계를 통해 시각적으로 높은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보다 심화된 내용은 창의적 체험활동, 토요동아리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서 활용하고 있는 효과분석과 관련된 지표를 종합 및 추출하여 진단 목적으로 실증분석을 시도한 시론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예술강사의 주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분석결과의 해석이 주의가 필요하며, 횡단면적 자료(Cross-Sectional Data)라는 점에서 연구결과에 대한 시계열적인 일반화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게다가 설문조사가 가지는 문항의 측정오차 및 표본오차의 가능성 등 내재적인 한계를 일정 부분 포함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보다 타당하고 합리적인 효과분석 모형의 개발 및 정량적 분석결과의 보안을 위한 후속연구들이 추가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특히,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교육분야에서 효과분석과 관련된 연구들은 초기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법론적인

9) 예술강사지원사업은 기본교과, 선택교과, 창의적체험활동, 토요동아리 등에 파견된다. 기본교과와 연계하여 수업을 시행하는 분야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국악, 연극, 무용 분야이며 고등학교에서는 국악과 연극이다.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미시적 수준에서 예술강사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 효과를 분석하고 있으나 이후의 연구들에서는 분석단위의 대상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즉,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한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분석모형의 체계화 및 정교화 등 모형의 개발 및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예술강사의 표본 규모의 확대, 횡단적 분석 외 패널자료를 활용한 분석 등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체계적 자료의 확보가 시급하다. 관련 데이터의 구축을 통해 예술강사지원사업과 관련된 분석이 보다 다양화 될 수 있으며 분석의 체계성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구축은 초기에는 비용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으나 일정 수준 이후에는 소규모의 비용을 통해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다.¹⁰⁾ 이러한 자료의 축적을 통해 예술강사지원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예술강사지원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정부부처(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체부, 교육부, 산하 연구기관 등)의 자료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시적인 수준에서의 분석 외 예술강사 중심의 개인수준의 분석을 넘어서 조직(학교) 수준, 나아가 지자체 수준으로 보다 거시적인 실증분석의 가능성을 보다 넓힌다. 다음으로 통합적, 사업별로 차등화된 효과분석의 모형을 개발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모형의 개발은 전술한 DB구축의 시행과 더불어 지표 풀(pool)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곽윤정. 2010.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우울성향, 자아상,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7(1): 1-14.
- 구인숙. 2010. “예술통합교육·무용이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모드니예술》, 3: 237-255.
- 김무규. 2011.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통한 영화 교육:부산지역 영화 교육자들과의 FGI 방법에 의한 고찰.” 《영화연구》, 48:89-116.
- 김미경·김영삼·라휘문·이세정·박충훈·신열. 2007. 《예술강사 지원사업 평가연구

10) 예를 들어, 신규 또는 재계약이 이뤄지는 예술강사의 일부를 임의로 선정하여 계약 시 설문 조사에 대한 설명과 예술강사 본인의 동의서를 제출 받으면, 예술강사지원사업과 관련된 패널자료의 구축은 대규모의 비용 없이 가능하다.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김미윤. 2004. “문화교육,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한 검토와 청소년 분야의 대응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9: 144-167.
- 김민정·최미영. 2013. “영남사물놀이를 적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교사교육연구》, 52(1): 96-108.
- 김상희. 2010. “예술강사지원사업 정책목표와 예술강사 정체성에 관한 연구.” 《문화예술경영학연구》, 3(2): 102-118.
- 김소영 외. 2012.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 토요문화학교운영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김종원. 2011.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전략 연구: 경남지역 예술강사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27:201-244.
- 김문환. 1997. 《문화경제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남궁근. 2013. 《행정조사방법론》, 법문사. 제4판.
- 문화체육관광부·교육과학기술부. 2010. 《창의성과 인성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방안》
- 민경훈. 2007.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방과후학교를 위한 통합형 음악교육의 수업안 개발.” 《한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7(1): 189-211.
- 박소연·홍성만·임채홍. 2011.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속성에 대한 정책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탐색.” 《문화예술교육연구》, 6(4): 111-132.
- 박인배. 2007. “문화예술교육 관점 전환의 방향.” 《청소년문화포럼》, 16: 269-281.
- 석문주·권덕원·오지향. 2010. “국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및 분석: 학교 문화예술교육 관점에서.” 《음악과 민족》, 40: 205-233.
- 오세곤. 2008. “문화예술교육 관련 법령 및 제도 연구.”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22: 5-38.
- 우주희. 2008. “방과후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두 가지 모델: 강사지원모델과 단체지원모델에 대한 비교 분석.” 《예술교육연구》, 6(2): 35-47.
- 원수현·김일용·안재영. 2008. “프랑스 예술문화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고찰.” 《기초조형학연구》, 9(1): 871-883.
- 윤여각. 2003. “문화, 예술 교육에 대한 재검토.” 《교육원리연구》, 8(1): 143-163.
- 이구슬. 2006. “우리의 문화예술교육정책 고찰: 프랑스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문화경제연구》, 9(2): 45-75.
- 이기성·박현수·이수현·장두용·이경우·백은유. 2010. 《2009 예술강사 지원사업 평

- 가 결과 보고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이윤식·윤종현. 2013. “학교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평가지표를 사용한 시스템모형 활용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3(3): 65-91.
- 이정일·이성노·이태현. 2012. “학교문화예술교육으로 무용참여가 초등학교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1(3): 815-826.
- 이해춘 외. 2009. 《2008 예술강사 지원사업 평가 결과 보고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임승희·김소영·이유리. 2013. “문화예술교육의 효과 연구.” 《인문콘텐츠》, 30: 225-245.
- 임영식·유제민·정경은·김윤나·양돈규. 2011.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연구: 교정시설/소년원학교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_____. 2013.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연구: 노인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임학순. 2006.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파트너십 구축 요인에 관한 연구: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7(3): 39-48.
- 전효관. 2009. “교육과 예술의 결합을 통한 교육의 대안 모색.” 《청소년 문화포럼》, 21: 227-239.
- 정문성·석문주·모경환·김해경. 2011.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연구: 예술꽃씨앗학교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정문성·유진은·전영은·박새름. 2014.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지속성 연구: 초등학교 예술꽃 씨앗학교 프로그램이 졸업 후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22(1): 431-447.
- 정보람·김휘정. 2012. “문화예술교육이 아동의 정서반응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공감능력과 분노조절을 중심으로.” 《문화경제연구》, 15(3): 161-183.
- 정현수·한준·김정옥·김기현·백령·박종효. 2013.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 분석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하수연. 2012. “‘미적체험’ 예술교육이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인식에 미치는 영향: ‘서울창의예술 중점운영학교’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경영》, 2: 57-84.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 《2013 예술강사 제3차 관계자 워크숍 자료집》.
- 한지혜. 2006. “프랑스에서의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그 시사점: 학교 정책을 중심으로”

로.” 《교육이론과 실천》, 16: 83-106.

홍기원. 2014. “문화예술교육사업의 효과평가에 대한 탐색적 연구.” 《예술경영연구》, 30: 35-59.

홍성만·임채홍·하민철. 2012.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우선순위 탐색: 학교문화예술교육정책 행위자에 대한 심층면담과 AHP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3(1): 77-105.

황연주. 2005.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의 관계 고찰.” 《예술교육연구》, 3: 83-96.

Gibson, M. A. and Larson, M. A. 2008. “A Research Journal on Integration in School and Communities: Visual Arts and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for Learning through the Arts*, 3(1): 1-41.

Harland, J., Kinder, K., Lord, P., Stott, A., Schagen, I., Haynes, J., Cusworth, L., White, R. & Paola, R. 2000, *Arts Education in Secondary Schools: Effects and Effectiveness*.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2012. *The Arts and Achievement in At-Risk Youth: Findings from Four Longitudinal Studies*,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Winner, Ellen. 2011. “The Impact of Arts Education”. Education for Innovation: The Role of Arts and STEM Education OECD.